

생협과 생산자 조직간의 연계 활성화 방안

김대희* · 김성수**

(*순천대학교 사범대학 강사 ·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교수)

The Promotive Schemes of Linkage between Consumers' Cooperatives and Farmers' Organizations

Dae - Hee Kim* · Sung - Soo Kim**

*Sunchon National Univ. · **Seoul National Univ.

적 요

우리 나라에서 생협운동은 환경문제와 사회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이 연구는 생협운동 활성화 대책으로서 생협과 생산자 조직간의 효율적인 연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문헌연구와 생협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통하여 조사도구를 구성하였으며, 163명의 생협조합원 및 생협과 유기농산물 직거래를 하는 농민들을 대상으로 면담 및 설문조사를 한 결과 다음과 같은 생협과 생산자 조직간의 연계활성화 방안들이 모색되었다.

첫째, 생협과 생산자 조직간의 효과적인 연계체계는 생협과 생산자 조직의 대표가 두 조직간의 연계활동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관리하며, 연계활동들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두 조직간의 연계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와 사회단체의 지원과 관심이 있어야 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셋째, 두 조직간의 연계활동에 조합원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생협운동의 이념과 활동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조합원과 시민들에게 홍보와 교육을 계속적으로 시키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결과가 나타났다.

넷째, 생협과 생산자 조직간의 농산물 직거래 활동 외에 생산과정 체험활동, 친목도모활동, 교류회 및 소식지 교환, 농업 및 환경문제 토론회, 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연계활동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 나라의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과 생산자 조직간의 연계활동은 생협과 생산자 조직간의 상호 실익성(reciprocity)과 연대감을 조성하는 생협운동의 핵심 영역이라 할 수 있다.

소비자 조합원들에게는 안전한 먹거리의 공급과 사회 및 환경운동, 여가 및 자녀교육의 장이 되고 있으며, 생산자 단체들에게는 생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문화활동의 장, 그리고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을 통한 도시소비자들과의 신뢰감회복이 증진되는 효과가 있다.

생협과 생산자와의 연계활동 중 중요한 부분인 유

기능산물 직거래는 기존 유통조직과 기능에 인간이 지배되는 현상을 고쳐 나가자는 것이며, 소비를 전제로 한 합리적 생산활동을 형성하자는 것이다. 생산과 소비과정에서 인간적인 접촉과 상호이해를 통해 현대 유통구조와 기능상의 모순을 시정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도매시장기능 공정화와 민주적 운영이 정착될 수 있게 자극을 가하는 것이다(정은미, 1995: 15). 그러므로 이와같은 연계활동은 환경운동, 생명운동, 여성운동, 소비자운동, 농민운동을 포괄하는 미래 지향적인 지역사회 운동으로 발전할 수 있는 주요한 사회적 토대가 된다.

우리 나라의 생산자 조직으로는 상호부조 및 협동의 필요성에 의하여 생겨난 전통적인 계, 품앗이, 두레 등을 비롯하여 현대적인 조직반활동 등 여러 가지 유형이 있다. 생산자 조직이 갖는 한계점은 생산된 물품들이 최종적으로 소비될 수 있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소비자들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그러나 최근 우리 나라에서 환경오염에 따른 안전한 먹거리의 확보와 생산품의 신뢰성 확보를 통한 소비자 보호, 협동구매에 의한 소비자 이익의 추구, 그리고 건전한 생산자의 육성과 지원을 목적으로 생협운동이 형성, 발전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생협운동은 단체 및 주문 생산-소비 체제로서 소규모 생산자가 많은 우리 나라의 농수축산어업의 특성에 적합하다 하겠다. 그리고 믿을 수 있는 제품의 생산과 소비 체제로서 생산 농어가와 소비자들의 신뢰감 회복, 여가, 문화, 환경 및 교육적 활동으로의 연계라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사회운동의 축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우리 나라 생협운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생협과 생산자 조직간의 연계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생협운동을 중심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목적들을 가지고 실시되었다.

첫째, 생협과 생산자 조직간의 연계의 필요성을 규명한다.

둘째, 생협과 생산자 조직간의 연계 실태를 파악한다.

셋째, 생협과 생산자 조직간의 연계 활성화 방안을 모색한다.

상기의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절차들을 거쳤다.

첫째, 문헌연구를 통하여 우리 나라 생협의 생성배경과 현황을 파악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연구의 초안점을 생협운동에 있어서 생산자 조직과의 연계가 왜 필요하고 활성화시켜야 할 것인가에 초점을 두고 생협의 생성배경, 일반적인 목적 및 주요 현황들을 파악하였다. 생협운동에 있어서 생산자 조직과 자금출자, 직거래 등의 직접적인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생협과 생산자 조직들을 주요 연구대상으로 다루었다. 따라서 공동육아조합과 같은 생활협동조합은 조사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생산자 조직의 경우는 생협과 연계활동을 하는 생산자 조직이 본 연구의 주요 대상이므로 범위를 한정하여 조사하였다.

둘째, 문헌연구와 설문조사를 통하여 생협과 생산자 조직간의 연계 필요성, 연계 현황과 유형을 파악하였다. 이는 우선적으로 문헌조사를 통하여 연계 필요성과 유형을 파악, 분류하고 이를 바탕으로 조사대상자들의 연계 현황과 유형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셋째, 설문과 전문가 자문을 통하여 생협과 생산자 조직간의 연계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생협조합원과 생산자 조직원들이 연계활동 속에서 일반적으로 느끼는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계활성화를 위한 역점사업과 바람직한 연계형태에 대하여 조사, 분석하였다.

II. 생협과 생산자 조직간의 연계 필요성과 연계 유형

1. 생협과 생산자 조직간의 연계 필요성

현대사회에서 생산과 유통을 장악하고 있는 대자본은 합리적인 생산-소비 활동을 제약해 왔다. 이에 따라 개별화 되어 있는 소비자는 대자본의 횡포에 대항하여 물건 본래의 가치를 회복하고 적절한 가격으로 필요한 양만큼의 물건을 구입하여 가치있게 소비하기 위해 구매력을 결집할 필요가 생겨났다. 생협운동에 있어 구매력의 집중은 단지 많은 양의 상품

을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물건이 지니는 본래의 가치를 부활시켜 인간의 삶을 질적으로 향상시키게 되고 나아가서 그 물건에 관련된 생산과 유통을 변혁시켜 간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김기섭, 1990:103-104).

이런 의미에서 생협운동은 대자본에 좌우되는 현대 대량 생산체제의 모순점이나 문제를 생활자 스스로가 참여하며 변혁시켜 가려는 새로운 대안추구형 사회운동이다. 생협운동을 통한 공동체 형성은 우리나라에서는 80년대 중반 이후 시작된 유기농산물 직거래 활동을 통하여 그동안 단절되었던 이웃과의 나눔의 생활을 실천하고, 생산자 농민을 지원하며, 우리 사회에 공동체 의식을 확산시키면서 환경보존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처럼 소비자들이 협동을 통하여 생활문제를 주체적으로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자발적 결사체(voluntary association)로서 생협운동은 생활에 뿌리를 내리면서 현대 산업사회체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넓히며,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타자와 연대하며, 공동 주관화된 사회변혁의 프로그램을 형성하여 운동을 전개하는 것에서 다른 사회운동과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한상민, 19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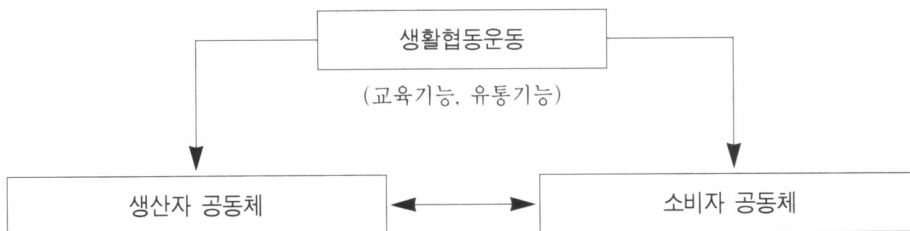
생협운동의 특징은 특정 이데올로기와 조직에의 헌신으로서의 운동이 아니라, 일상생활 수준에서 일상생활의 생활자원을 매개로 타자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치고, 그 문제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자기 정체감과 자기표출을 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사회운동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 여성개발원에서는

생활공동체 생협운동은 회원 및 조합원의 자발적 참여와 자원활동을 강조하는 새로운 협동조합운동이고, 그 이념이나 사업내용이 소비자운동 뿐만 아니라 환경운동과 생명운동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사회운동이라고 특징 지우고 있다(한국여성개발원, 1993).

우리 나라의 경우 현재와 같은 생협운동은 생산 및 생활자재 공급보다도 농산물 수입개방이 본격화 되면서, 생산자에게는 경쟁력있는 재배품목으로 유기농산물이 각광받게 되었고, 소비자의 소비패턴 변화가 뒤따르면서 기존 유통체계의 약자였던 생산자와 소비자가 각각의 조직을 형성하여 산지직거래로 농산물을 생산 소비하는 패턴으로 나타났던 것이다.

도시 소비자그룹과 생산자와의 연계는 도시공동체 자체로서만은 먹거리의 생산-소비-재생산이라는 순환의 논리를 소화할 수 없으며, 사회 변화의 힘 또한 가질 수 없다. 또한 도시소비자들을 중심으로 한 생활공동체 형성으로 구매력을 집산화하지 않으면 협동적 생산을 통한 생산자 공동체 형성의 토대도 약화될 수밖에 없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협의하여 가격을 정하고, 생산자는 자신도 소비자의 일원으로서 농약이나 비료사용을 자제하고 안전한 먹거리 생산에 주력하며, 소비자는 생활오염을 줄이고 가능한 모든 물품을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생태계의 순환 질서에 부응하고자 노력하는 것이다(윤형근 역, 1989).

현대 사회에서 생산력에 대비되는 소비의 힘이 사회 변화과정에 점점 큰 세력으로 등장한다는 점과 환경운동은 기본적으로 삶의 현장 정치가 되어야 하며 그런 점에서 일상생활 또는 공동체적 매개체가



출처: 정규호, 1994, p. 65.

그림 1. 생활협동운동을 통한 공동체 형성전략

없이는 사회변화를 위한 정치 의식화 및 교육이 힘들다는 점(권태준, 1991: 354-355) 때문에도 생협운동에 대한 현실적 요구는 매우 크다고 보여진다.

생협운동을 통한 소비자 공동체와 생산자 공동체의 형성전략은 그림 1과 같다.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직거래 활동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생협운동은 단순히 도시소비자와 농촌생산자의 직거래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생활속의 연대를 통한 새로운 소비패턴의 창조와 협력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경제질서를 창출하고자 하는 것이다.

생협과 생산자 조직간의 상시적인 연계는 생산농업인들의 농산물 판매에 관한 걱정을 덜어주기도 하고 더불어 소비자들과의 접촉을 통하여 출하하는 농산물의 안전성에 관심을 갖게 할 것이다. 그리하여 생산자들은 농약과 화학비료를 가능한 한 줄이고 빛깔이나 모양이 덜 좋더라도 소비자들의 건강에 해가 되지 않고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농산품을 생산하고자 할 것이다. 생협의 교육활동이나 산지 견학 등은 생산자들의 의식을 점점 질 좋은 생산물을 자신 있게 생산하는 방향으로 전환시킬 것이다. 유기농법을 모르던 생산자도 연계과정 하나 하나에서 재배기술이나 관리기술을 배우게 되고 소비자들이 농산물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생산과정에서의 안정성을 더 신뢰한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이들간의 연계는 환경운동과 농산물 유통문제 해결에 큰 디딤돌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제 차원에서 생협과 생산자 조직과의 연계는 생협운동의 확산과 더불어 환경운동, 교육운동, 여성운동 등의 새로운 공동체 운동으로 점차 활성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매우 높다.

2. 생협과 생산자 조직간의 연계 유형

1) 연계 내용에 따른 연계 유형

생협과 생산자 조직간의 연계를 연계 내용별로 유형화하면 크게 아래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이창수, 1995).

첫째, 농산물 직거래이다. 생협은 주로 유기농업

생산단지나 환경농업을 지향하고 있는 생산자 조직들과 장기 계약재배 형식의 직거래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쌀과 곡류는 가격이 비싸더라도 유기농법으로 생산된 농산물을 생협조합원들이 선호하고 있다. 그 외에도 생산자들은 야채류, 과일류, 축산물류, 가공식품류 등을 단위생협이나 중앙회 등을 통하여 소비자들에게 공급하고 있다.

둘째는, 관광농업 형태의 연계이다. 도시지역 중심인 생협과 농촌지역에 있는 생산자 조직들간에 직거래 뿐만 아니라 서로의 생활상을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는 소비자 현장답사, 주말 일손돕기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행사들은 자연과 괴리되고, 이웃간에 익명화된 도시소비자들에게 새로운 체험과 감동을 주는 계기가 되고 있다.

셋째는, 사회문화적 연계이다. 봄철의 파종기나 가을철의 추수기의 생산과정에 생협조합원들을 초대하여 함께 파종과 추수를 하고 마을 잔치에서 함께 먹고 마시며 즐기는 형태의 연계이다. 예를 들면 홍성 풀무생협에서는 5월 단오절 무렵에 오리농법에 사용되는 오리를 방사하는날 소비자 생협조합원들을 초대하여 함께 방사하고, 생산비로는 값이 부담이 되는 오리를 참가한 조합원들에게 분양행사도 한다. 분양 받은 오리는 수확기에 조합원들이 가져갈 수 있다. 그리고 가을에는 조합원 가구의 어린이들과 함께 메뚜기 잡기 행사를 하는 곳도 있다.

넷째로, 교육프로그램을 통한 연계이다. 생협에서 주최한 생산품 설명회에 생산자가 직접 참여하여 생산과정과 생산품의 특성들을 설명하거나, 생협에서 발행한 소식지나 간행물을 교류함으로써 생산지와 소비자의 의식수준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활동이다. 주변의 환경문제나 식품 안전성에 관한 토론회를 생산농민과 생협이 함께 계획하는 등의 프로그램이 있다.

2) 연계 형태에 따른 연계 유형

생협과 생산자와의 연계 형태에 기초하여 구분한다면 다음의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단위생협과 생산자 조직과 연계하는 것으로서 단위생협과 유기농업생산자 모임이나 영농조합법

인, 작목반 등의 생산자 조직과 연계하는 형태이다.

둘째, 생협과 생협에 참여하는 조합원 생산자와의 연계이다. 풀무생협이나 호저생협과 같이 생협의 조합원중에 생산자가 있어서 조직된 생산자회와 생협과의 여러 가지 연계사업을 실시하는 형태이다.

셋째, 단위생협과 개별 생산자와의 연계로 단위생협과 조직되지 못한 개별 생산자와 연계하는 형태이다.

III. 조사연구의 계획 및 방법

1. 조사도구의 제작

본 연구의 조사도구는 생협에 관한 선행연구와 생협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구성하였다. 구성된 설문 문항들은 '98년 9월 20일부터 10월 2일까지 경실련정농생협과 한밭살림생협, 여성민우회생협 등의 매장과 환경장터를 통하여 30부를 예비조사 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질문 문항이 모호하거나 잘못 구성된 것들을 수정, 보완하였다.

2. 자료의 수집

자료의 수집은 '98년 10월 8일부터 11월 20일까지 표 2의 선정 기준에 따라 7개의 생협을 방문하여 생협가입자 및 종사자, 생협과 직거래를 하는 농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통하여 이루어 졌다. 표 1과 같은 선정 기준을 적용한 것은 여러 유형의 생협들의 의

견들이 생협과 생산자 조직의 연계활성화에 대한 조사결과에 끌고루 반영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설문지는 각 생협별로 60부씩 총 420부를 배부하였다. 설문지를 회수한 결과 생협 조합원들의 경우는 어느 정도 설문에 성의를 보였으나, 농민들의 경우는 흥작으로 인하여 회수률이 극히 저조하고, 불량 응답의 경우가 많아 최종적으로 분석에 사용된 설문지는 163부 였다.

3. 조사결과의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적용된 주요 통계 방법은 빈도, 백분율, χ^2 검증, t 검증, 변량분석 등이었다.

IV. 조사결과의 해석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 사용된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2와 같았다. 소속별에 따라서는 전체 163명의 응답자 중 농산물을 생협에 납품하는 농업생산자는 생산자조직에만 가입되어 있는 경우가 45명(27.6%), 생산자조직과 생협에 모두 가입하여 활동하는 경우가 35명(21.5%)이었으며, 생협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소비자는 83명(50.9%)이었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성이 51명(31.3%), 여성이 112명

표 1. 조사대상 생협의 선정 기준 및 설문지 회수량

선정 기준	사회 단체 주체형	지역 주민 주체형	생산자 조직 주체형
대 도시	경실련 정농생협(생산자 조직과 협동으로 조직): 조합원 및 농민 9부 여성민우회 생협: 조합원 18부, 농민 12부	땅을지키는 모임 생협(유기농업 생산자들과 공동출자): 조합원 및 농민 10부 한밭 살림생협: 조합원 19부, 농민 11부	
중소 도시	주민 생협(교회에서 지역 주민과 협동으로 조직): 조합원 22부, 농민 14부	부천 생협: 조합원 24부, 농민 13부	풀무 생협: 조합원 및 농민 16부

(68.7%)이었고, 연령별로는 30세 미만이 12명(7.4%), 30세-40세 미만이 83명(50.9%), 40세-50세 미만이 41명(25.1%), 50세 이상이 27명(16.6%)이었다.

응답자의 월평균 소득에 따른 특성은 100만원 이하가 41명(25.2%), 100만원-200만원 미만이 58명(35.6%), 200만원 이상이 64명(39.3%)이었다. 그리고 생협 및 생산자 조직의 모임에 참여하는 월 평균 시간은 한달에 한두번 정도 참여할 것으로 보이는 5시

간 미만이 66명(40.5%),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모임에 참여할 것으로 보이는 5시간-20시간 미만이 65명(39.9%), 모임에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보이는 20시간 이상이 32명(19.6%)이었다. 생협 및 생산자 조직에 출자한 출자금은 10만원 미만이 89명(54.6%), 10만원-50만원 미만이 52명(31.9%), 50만원 이상이 22명(13.5%)이었다. 이들의 조직에서의 역할은 조합원인 경우가 121명(74.2%), 실무자인 경우가

표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특성	구분	빈도	백분율(%)
소속	농업생산자조직	45	27.6
	생협	83	50.9
	농업생산자조직+생협	35	21.5
성별	남	51	31.3
	여	112	68.7
연령	30세 미만	12	7.4
	30세-40세 미만	83	50.9
	40세-50세 미만	41	25.1
	50세 이상	27	16.6
월평균소득	100만원 이하	41	25.2
	100만원-200만원 미만	58	35.6
	200만원 이상	64	39.3
모임에의 참여시간 (시간/월)	5시간 미만	66	40.5
	5시간-20시간 미만	65	39.9
	20시간 이상	32	19.6
출자금	10만원 미만	89	54.6
	10만원-50만원 미만	52	31.9
	50만원 이상	22	13.5
조직에서의 역할	조합원	121	74.2
	실무자	42	25.8
거주지	농어촌지역	63	38.7
	중소도시	30	18.4
	대도시	70	42.9
가입년한	5년 미만	70	42.9
	5년-10년 미만	74	45.4
	10년 이상	19	11.7
계		163	100.0

42명(25.8%)이었다.

응답자의 거주지별 분포는 농어촌 지역이 63명(38.7%), 중소도시가 30명(18.4%), 대도시가 70명(42.9%)이었고, 이들의 가입연한은 5년 미만인 경우가 70명(42.9%), 5년-10년 미만인 경우가 74명(45.4%), 10년 이상인 경우가 19명(11.7%)이었다.

2. 생협조합원의 생협운동에의 참여동기

생협조합원들의 생협운동에의 참여동기를 조사한 결과는 표 3과 같았다. 가장 높은 응답을 보인 것은 '직거래를 통한 가족의 건강도모'로 49명(41.5%)이었으며, 다음으로는 '이웃이나 친지의 권유'가 31명(26.3%), '생협에서의 권유와 홍보'가 19명(16.1%), '친목 및 사회활동의 계기'가 16명(13.6%), '경제적 이유'가 4명(2.5%)으로 나타났다.

3. 생산자 조직 농민들이 생협과 직거래를 하게 된 이유

생산자조직이 생협과 직거래를 하게 된 이유를 3순위까지 조사한 결과는 표 4와 같았다.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라고 응답한 경우는 1순위가 36명(45.0%), 2순위가 10명(27.0%)이었다. 생협과의 직거래가 생산자조직의 단체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고 응답한 경우는 1순위가 16명(20.0%), 2순위가 7명(18.9%), 3순위가 11명(34.4%)이었다.

생협과 직거래를 하게 된 이유로 생협 이념에 동조하였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1순위가 14명(17.5%), 2순위가 13명(35.1%), 3순위가 8명(25.0%)이었고,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직거래를 하게 되었다고 응답한 경우는 1순위가 13명(16.3%), 2순위가 6명(16.2%), 3순위가 7명(21.9%)이었다.

표 3. 생협조합원들의 생협운동에의 참여동기

구분	빈도(N)	백분율(%)
직거래를 통한 가족의 건강도모	49	41.5
이웃이나 친지의 권유	31	26.3
생협에서의 권유와 홍보	19	16.1
친목 및 사회활동의 계기	16	13.6
경제적 이유	4	2.5
계	118	100.0

표 4. 생산자조직 농민이 생협과 직거래를 하게 된 이유

구분	1순위 응답률(%)	2순위 응답률(%)	3순위 응답률(%)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	36(45.0)	10(27.0)	5(15.6)
단체활동의 일환	16(20.0)	7(18.9)	11(34.4)
생협 이념에의 동조	14(17.5)	13(35.1)	8(25.0)
경제적 이익	13(16.3)	6(16.2)	7(21.9)
기타	1(1.3)	1(2.7)	1(3.1)
계	80(100.0)	37(100.0)	32(100.0)

4. 생협과 생산자 조직간의 연계 효과

1) 직거래를 통하여 얻는 경제적 이익

직거래를 통하여 얻는 경제적 이익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는 표 5와 같았다.

전체의 약 75%가 직거래가 경제적으로 보탬이 된다고 응답하였다. 별로 도움이 안된다고 응답한 경우는 41명(25.2%)이었으며,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경우는 87명(53.4%), 도움이 많이 된다고 응답한 경우는 35명(21.5%)이었다.

2) 직거래 등 연계활동을 통하여 깨닫게 된 점

직거래 등 생산자조직과 생협과의 연계활동을 통하여 깨닫게 된 점을 3순위까지 조사한 결과는 표 6과 같았다.

연계활동을 통하여 생산자와 소비자가 공동체적 운명이라는 점을 깨닫게 되었다고 응답한 경우는 1순위가 62명(38.0%), 2순위가 25명(15.3%), 3순위가 34명(20.9%)이었다. 그리고 연계활동을 통하여 환경

문제를 보다 더 잘 이해하게 되었다고 응답한 경우는 1순위가 40명(24.5%), 2순위가 65명(39.9%), 3순위가 32명(19.6%)이었다. 생산자 농민의 어려움을 이해하게 되었다고 응답한 경우는 1순위가 30명(18.4%), 2순위가 29명(17.8%), 3순위가 46명(28.2%)이었고, 소비자들의 건강을 고려하여 농산물을 생산해야 한다는 점을 보다 더 생각하게 되었다고 응답한 경우는 1순위가 18명(11.0%), 2순위가 32명(19.6%), 3순위가 33명(20.2%)이었다.

그리고 연계활동을 통하여 상품의 품질에 대한 이해가 높아졌고, 가격 및 유통 문제 등에 대하여 관심이 증가하게 되었다고 응답한 경우는 1순위가 13명(8.0%), 2순위가 12명(7.4%), 3순위가 18명(11.0%)이었다.

이러한 응답경향은 교차분석 결과 생협조합원의 경우 생산자 농민의 어려움을 이해하게 되었다는데 많은 응답을 한 것과 생산자 농민의 경우 소비자들의 건강을 고려하여 생산해야 함을 더 인식하게 되었다에 많은 응답을 한 것을 제외하고는 집단간에

표 5. 직거래를 통하여 얻는 경제적 이익

구분	빈도	백분율
별로 도움이 안됨	41	25.2
어느 정도 도움이 됨	87	53.4
도움이 많이 됨	35	21.5
계	163	100.0

표 6. 직거래 등 연계활동을 통하여 깨닫게 된 점

구분	1순위 응답률(%)	2순위 응답률(%)	3순위 응답률(%)
생산자와 소비자가 공동체적 운명이라는 점	62(38.0)	25(15.3)	34(20.9)
환경문제에 대한 심화된 이해	40(24.5)	65(39.9)	32(19.6)
생산자 농민의 어려움 이해	30(18.4)	29(17.8)	46(28.2)
소비자들의 건강 고려	18(11.0)	32(19.6)	33(20.2)
상품의 품질, 가격, 유통 등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 증가	13(8.0)	12(7.4)	18(11.0)
계	163(100.0)	163(100.0)	163(100.0)

표 7. 생협과 생산자 조직간의 연계활동 수준

구 분		평균	표준편차	F(2,160)	LSD		
					1	2	3
직거래 정도	생산자조직(45)	2.80	0.84	6.14**	1		☆
	생협(83)	2.28	0.86		2	☆	☆
	생산자+생협(35)	2.71	1.02		3		☆
	계(163)	2.52	0.92				
직거래 외 공동 행사 정도	생산자조직(45)	2.62	0.83	0.39	1		
	생협(83)	2.72	0.82		2		
	생산자+생협(35)	2.80	1.16		3		
	계(163)	2.71	0.90				
상호 방문 활동 정도	생산자조직(45)	2.53	0.92	1.99	1		
	생협(83)	2.76	0.84		2		
	생산자+생협(35)	2.94	1.11		3		
	계(163)	2.74	0.93				
상호 자금 지원 정도	생산자조직(45)	3.38	1.23	0.37	1		
	생협(83)	3.33	1.13		2		
	생산자+생협(35)	3.31	1.30		3		
	계(163)	3.34	1.19				
공동행사에 대한 협의 정도	생산자조직(45)	2.56	1.10	1.86	1		
	생협(83)	2.94	1.13		2		
	생산자+생협(35)	2.94	1.21		3		
	계(163)	2.83	1.15				
직거래 상품 가격 협상 정도	생산자조직(45)	1.69	0.85	6.16**	1		☆ ☆
	생협(83)	2.30	1.06		2	☆	
	생산자+생협(35)	2.31	1.05		3	☆	
	계(163)	2.13	1.03				
상호 연락 정도	생산자조직(45)	2.04	0.82	3.17*	1		☆
	생협(83)	2.47	0.90		2		
	생산자+생협(35)	2.40	1.09		3	☆	
	계(163)	2.34	0.94				
직거래외 공동행사를 위한 모임 정도	생산자조직(45)	2.42	0.58	0.27	1		
	생협(83)	2.20	0.82		2		
	생산자+생협(35)	2.29	0.82		3		
	계(163)	2.28	0.72				

점수: 1-매우 잘됨, 2-잘됨, 3-보통, 4-안됨, 5-전혀안됨(단, 모임정도는 1-모이지않음, 2-1년에 한두번, 3-한달에 1번, 4-한달에 2회이상)

*: p<0.05, **: p<0.01

응답을 차가 나지 않았다. 따라서 생협과 생산자조직과의 직거래 등 연계활동이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유대와 공동체 의식을 강화시키며, 환경문제 및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을 증가시킨다고 볼 수 있다.

5. 생협과 생산자 조직간의 연계 수준

생협과 생산자 조직간의 연계활동 수준을 5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는 표 7과 같았다.

직거래 정도에 대한 인식수준을 조사한 결과 생협 조합원(2.28)이 생산자조직 농민(2.80)과 생산자조직과 생협에 모두 가입하여 활동하는 조합원들(2.71)보다 직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이는 생협을 통하여 물품을 구입하는 조합원들 중 일부는 주요 활동이 생협과의 직거래 활동이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생협과 생산자 조직간의 상호 자금지원 정도는 집단간의 차이가 없었으며, 평균 3.34로 자금지원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거래 상품의 가격 협의 정도는 평균 2.13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특히 생산자 조직 농민들의 인식이 평균 1.69로 생협 조합원의 평균 2.30, 생협과 생산자 조직 모두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조합원 2.31보다 매우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생협과 생산자 조직간의 상호연락 정도는 평균 2.34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생산자 조직 농민들이 평균 2.04로 생협조합원의 평균 2.47과 양쪽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조합원의 평균 2.40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집단간의 차이는 생산자 농민의 경우가 생협과의 거래활동이 주로 상품에 대한 가격협상과 납품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직거래외 공동행사의 활성화 정도에 대한 인식은 평균 2.71, 상호방문 활동 정도에 대한 인식은 평균 2.74, 공동행사에 대한 협의 정도는 평균 2.84로 직거래외 활동의 활성화에 대한 인식정도는 보통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집단간의 차이도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직거래 외 공동행사를 위한 모임정도도 집단간의 차이가 없었으며, 평균 2.28로 1년에 한두번 정도 모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 생협과 생산자 조직간 연계활동의 강화 필요성

생협과 생산자 조직간 연계활동의 강화 필요성을 5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는 표 8과 같았다.

우선적으로 두 조직간의 연계활동의 좀 더 강화되어야 할 필요성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각 집단간의 차이가 없었으며, 평균 1.52로 연계활동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리고 두 조직간의 연계활동이 필요한 이유를 조사한 결과 두 조직간 활동의 다양화 또는 활성화에 도움(평균 1.67)이 되고, 연계활동으로 인하여 직거래 물품의 품질향상과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신뢰가 회복(평균 1.48)되며, 또한 연계활동이 사회봉사나 환경보전, 그리고 자녀교육에 도움(평균 1.55)이 되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거래 외의 연계활동을 늘려야 할 필요성에 대하여는 평균 2.58로 약간 약한 수준이었으며, 표준편차도 1.11로 조합원 또는 조직원들간의 편차도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V. 소비자 생활협동조합과 생산자 조직간의 연계 활성화 방안

1. 생협과 생산자 조직간의 연계활성화를 위한 역점 사업

생협과 생산자 조직간의 연계활성화를 위한 역점 사업에 대하여 3순위까지 조사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인 것은 생협과 생산자 조직간의 주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 농산물 직거래 활동이었는데 1순위에 54명(33.1%), 2순위에 35명(21.5%), 3순위에 40명(24.5%)이 응답하였다. 그리고 두 번째로 높은 응답률을 보인 것은 두 조직간의 친목도모 활동으로서 1순위에 47명(28.8%), 2순위에 48명(29.4%), 3순위에 41명(25.2%)이 응답하였다. 따라서 소비자와 생산자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활동에 대한 요구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8. 생협과 생산자 조직간의 연계활동의 필요성

구 분		평균	표준편차	F(2,160)
두 조직간 연계활동이 더 강화되어야 함	생산자조직(45)	1.62	0.72	1.02
	생협(83)	1.49	0.55	
	생산자+생협(35)	1.43	0.70	
	계(163)	1.52	0.63	
두 조직간 활동의 다양화/활성화를 위해 연계활동이 필요	생산자조직(45)	1.76	0.77	0.54
	생협(83)	1.61	0.75	
	생산자+생협(35)	1.69	0.68	
	계(163)	1.67	0.74	
직거래 외의 연계활동을 늘려야	생산자조직(45)	2.76	1.15	1.45
	생협(83)	2.43	1.10	
	생산자+생협(35)	2.69	1.08	
	계(163)	2.58	1.11	
직거래 물품의 품질향상/신리회복을 위해 연계활동이 필수적	생산자조직(45)	1.51	0.82	0.26
	생협(83)	1.45	0.69	
	생산자+생협(35)	1.54	0.74	
	계(163)	1.48	0.77	
사회봉사, 환경보전, 자녀교육 등을 위해 연계활동이 필수적	생산자조직(45)	1.71	0.94	2.69
	생협(83)	1.57	0.74	
	생산자+생협(35)	1.31	0.53	
	계(163)	1.55	0.77	

점수: 1-매우 그렇다, 2-그렇다, 3- 보통, 4-아니다, 5- 전혀 아니다

표 9. 생협과 생산자 조직간의 연계활성화를 위한 역점 사업

구 분	1순위 응답률(%)	2순위 응답률(%)	3순위 응답률(%)
농산물 직거래 활동	54(33.1)	35(21.5)	40(24.5)
상호간 친목도모 활동	47(28.8)	48(29.4)	41(25.2)
생협교육과 의식화 활동	36(22.1)	50(30.7)	33(20.2)
상호간 소식지 교류 활동	16(9.8)	16(9.8)	28(17.2)
문화행사	10(6.1)	14(8.6)	21(12.9)
계	163(100.0)	163(100.0)	163(100.0)

생협에 대한 이념 및 의식화 활동에 대한 응답률은 1순위에 36명(22.1%), 2순위에 50명(30.7%), 3순위에 33명(20.2%)이 응답하였다. 그리고 상호간 소식지 교류활동에 대한 응답률은 1순위와 2순위에 16명씩

(9.8%), 3순위에 28명(17.2%)이 응답하였으며, 문화행사에 대한 응답률은 1순위에 10명(6.1%), 2순위에 14명(8.6%), 3순위에 21명(12.9%)이 응답하였다.

표 10. 생협과 생산자 조직간 연계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구 분		평균	표준편차	F(2,160)
구성원의 참여가 잘 됨	생산자조직(45)	2.82	0.78	0.60
	생협(83)	2.95	0.81	
	생산자+생협(35)	3.00	0.73	
	계(163)	2.93	0.78	
연계활동을 위한 전문계획자가 많다(*)	생산자조직(45)	3.07	0.89	0.61
	생협(83)	2.87	1.08	
	생산자+생협(35)	2.86	1.17	
	계(163)	2.92	1.05	
정부나 사회단체에서 모임장소나 계획에 관심과 지원이 부족	생산자조직(45)	2.09	1.24	0.65
	생협(83)	2.05	1.03	
	생산자+생협(35)	1.83	1.01	
	계(163)	2.01	1.09	
구성원의 결속력 강함*	생산자조직(45)	3.38	0.89	1.06
	생협(83)	3.42	0.89	
	생산자+생협(35)	3.66	1.03	
	계(163)	3.46	0.92	
구성원의 부족	생산자조직(45)	2.62	1.30	0.65
	생협(83)	2.43	1.01	
	생산자+생협(35)	2.37	1.06	
	계(163)	2.47	1.11	
타 생협 및 생산자 조직과 연대해야	생산자조직(45)	1.71	0.79	2.78
	생협(83)	2.07	1.01	
	생산자+생협(35)	2.11	0.80	
	계(163)	1.98	0.92	
다양한 연계활동을 계획해야	생산자조직(45)	1.76	0.88	1.31
	생협(83)	2.04	1.04	
	생산자+생협(35)	1.86	0.91	
	계(163)	1.92	0.97	
생협법이 조속히 제정되어야	생산자조직(45)	1.29	0.59	0.34
	생협(83)	1.48	0.90	
	생산자+생협(35)	1.54	0.98	
	계(163)	1.44	0.85	

점수: 1-매우 그렇다, 2-그렇다, 3-보통, 4-아니다, 5-전혀 아니다

(*): 질문을 반대로 하여 역으로 통계처리 함

2. 생협과 생산자 조직간 연계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생협과 생산자 조직간 연계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는 표 10과 같았다.

연계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있어서 집단간의 유의차는 없었으며, 개선방안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낸 것은 생협법이 조속히 제정되어야 한다는 것(평균 1.44)이었으며, 다음으로 높은 점수를 나타낸 것은 다양한 연계활동을 계획해야 한다는 것(평균 1.92), 타 생협 및 생산자 조직과 연대해야 한다는 것(평균 1.98) 순이었다.

연계상의 문제점으로는 정부나 사회단체 등에서 모임장소나 연계활동의 계획 등에 관심과 지원이 부족하다는 것(평균 2.01), 구성원의 부족(평균 2.47)과 구성원의 결속력이 약함(평균 3.46) 등의 순이었다.

3. 생협과 생산자 조직간의 연계 활성화 방안

1) 생협관련 주요 활동경험에 따른 연계 활성화 방안

생협운동과 관련된 직거래 장터, 산지견학, 문화활동, 조합원총회, 환경보호운동, 생협교육활동 및 여러 모임에 대한 참여 경험이 생협과 생산자 조직간의 연계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계활성화를 위한 역점사업과 연계 방식 등에 영향을 끼치는지를 조사한 결과는 표 11과 같았다.

가장 많은 영향을 나타낸 것은 생협의 교육활동이었는데, 생협교육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생협과 생산자 조직간의 연계활동의 강화 필요성, 연계활동을 통하여 생협과 생산자 조직간의 활동이 다양화되고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 연계활동이 직거래 물품의 품질향상과 소비자와 생산자간의 신뢰회복을 위해 꼭 필요할 것이라는 것, 직거래 외의 연계활동의 필요성, 그리고 정부나 사회단체 등에서의 생협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점, 연계활동이 사회봉사나 환경운동 및 자녀교육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소비자 모임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경우는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생협법 제정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었으며, 생협과 생산자 조직간의 연계수준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느끼고 있었으며, 연계활동이 생협과 생산자 조직간의 활동을 다양화하고, 활성화시킨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직거래외의 연계활동의 필요성도 높게 인지하는 경향이 있었다.

조합원 총회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생협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고 있었으며, 생협과 생산자 조직간의 연계수준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느끼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연계활동이 생협과 생산자 조직간 활동을 다양화시키고, 활성화 시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조합원의 결속력에 대하여는 참여한 경험이 있을수록 결속력이 약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생산자 모임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생협과 생산자 조직이 타 조직과 연계하여 활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생협법의 필요성도 강하게 느끼는 경향이 있었다.

생협에서 주관하는 농업토론회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생협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고 있었으며, 또한 생협과 생산자 조직간의 연계수준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느끼는 경향이 높았다.

그리고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교류회나 모임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생협과 생산자 조직간의 연계수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따라서 생협과 생산자 조직간의 연계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교육 및 활동 전략으로서 생협이념에 대한 교육활동을 강화하고, 소비자 및 생산자 모임과 조합원 총회에 가급적 생협조합원과 생산자조직 농민들을 참여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생협 자체적으로 농업토론회와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모임 및 교류활동을 강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표 11. 생협관련 활동경험에 따른 영향

구 분		평균	표준편차	t(161)
생협교육활동 참여 경험에 따른 두 조직간 연계 강화 필요성	없다(83)	1.67	0.63	3.38**
	있다(80)	1.35	0.60	
	계(163)	1.52	0.63	
생협교육활동 참여 경험에 따른 연계활동이 두 조직간 활동의 다양화 및 활성화 효과에 대한 견해	없다(83)	1.84	0.77	3.16**
	있다(80)	1.49	0.66	
	계(163)	1.67	0.74	
생협교육활동 참여 경험에 따른 연계활동이 직거래 물품의 품질향상과 신뢰회복 효과에 대한 견해	없다(83)	1.66	0.87	3.26**
	있다(80)	1.30	0.49	
	계(163)	1.48	0.77	
생협교육활동 참여 경험에 따른 직거래 외 연계활동의 필요성	없다(83)	2.76	1.13	2.15*
	있다(80)	2.39	1.06	
	계(163)	2.58	1.11	
생협교육활동 참여 경험에 따른 생협에 대한 정부나 사회의 관심과 지원부족에 대한 견해	없다(83)	2.18	1.05	2.03*
	있다(80)	1.84	1.11	
	계(163)	2.01	1.09	
생협교육활동 참여 경험에 따른 연계활동이 사회봉사, 환경보전, 자녀교육 등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견해	없다(83)	1.71	0.88	2.73**
	있다(80)	1.39	0.61	
	계(163)	1.55	0.77	
소비자 모임 경험에 따른 생협법 제정의 필요성	없다(84)	1.61	0.93	2.62**
	있다(79)	1.27	0.71	
	계(163)	1.44	0.85	
소비자 모임 경험에 따른 연계강화의 필요성	없다(84)	1.73	0.68	4.67**
	있다(79)	1.29	0.48	
	계(163)	1.52	0.63	
소비자 모임 경험에 따른 연계활동이 두조직간 활동의 다양화, 활성화효과에 대한 견해	없다(84)	1.82	0.79	2.78**
	있다(79)	1.51	0.64	
	계(163)	1.67	0.74	
소비자 모임 경험에 따른 직거래의 연계활동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	없다(84)	2.76	1.13	2.22*
	있다(79)	2.38	1.07	
	계(163)	2.58	1.11	
조합원 총회 참여 경험에 따른 생협법 제정의 필요성	없다(78)	1.63	0.99	2.74**
	있다(85)	1.27	0.64	
	계(163)	1.44	0.85	
조합원 총회 참여 경험에 따른 두 조직간 연계 강화 필요성	없다(78)	1.67	0.68	3.00**
	있다(85)	1.38	0.56	
	계(163)	1.52	0.63	

구 분		평균	표준편차	t(161)
조합원 총회 참여 경험에 따른 연계활동이 두 조직간 활동의 다양화 및 활성화 효과에 대한 견해	없다(78)	1.79	0.80	2.11*
	있다(85)	1.55	0.66	
	계(163)	1.67	0.74	
조합원 총회 참여 경험에 따른 조합원의 결속력이 높다는 것에 대한 견해(*)	없다(78)	3.24	0.86	-2.95*
	있다(85)	3.66	0.93	
	계(163)	3.46	0.92	
생산자 모임 참여 경험에 따른 타 조직과의 연계 필요성	없다(90)	2.12	0.99	2.19*
	있다(73)	1.81	0.79	
	계(163)	1.98	0.92	
생산자 모임 참여 경험에 따른 생협법 제정의 필요성	없다(90)	1.64	1.02	3.51**
	있다(73)	1.19	0.46	
	계(163)	1.44	0.85	
생협 주관 농업토론회 참여 경험에 따른 생협법 제정의 필요성	없다(90)	1.22	1.54	2.33*
	있다(73)	0.91	0.64	
	계(163)	1.44	0.46	
생협 주관 농업토론회 참여 경험에 따른 두 조직간 연계 강화 필요성	없다(112)	1.62	0.67	3.09*
	있다(51)	1.29	0.46	
	계(163)	1.52	0.63	
생산자-소비자간의 모임 및 교류회 경험에 따른 연계활동의 강화 필요성	없다(70)	1.66	0.70	2.53*
	있다(93)	1.41	1.41	
	계(163)	1.52	0.63	

점수: 1-매우 그렇다, 2-그렇다, 3-보통, 4-아니다, 5-전혀 아니다

(*): 질문을 반대로 하여 역으로 통계처리 함

표 12. 생협과 생산자 조직간의 연계활성화를 위한 연계 형태

구분	빈도	백분율(%)
각 단위 생협과 생산자 조직의 대표가 두 조직간의 연계활동을 관리, 지원하는 형태	81	49.7
생협중앙회에서 두 조직간의 연계활동을 관리, 지원하는 형태	26	16.0
정부 및 지방자치기구에서 두 조직간 연계활동을 관리, 지원하는 형태	23	14.1
각 단위 생협에서 두 조직간 연계활동을 관리, 지원하는 형태	22	13.5
각 생산자 조직에서 두 조직간 연계활동을 관리, 지원하는 형태	11	6.7
계	163	100.0

2) 생협과 생산자 조직간의 연계활성화를 위한 연계 형태

생협과 생산자 조직간의 연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 바람직한 연계 형태에 관한 조사 결과는 표 12와 같았다.

가장 바람직한 연계 형태로 생각하는 것은 각 단위 생협과 생산자 조직의 대표가 두 조직간의 연계 활동을 관리, 지원하는 형태였으며, 전체 163명중 81명이 응답하여 약 50%의 응답율을 보였다.

VI. 결론

생협과 생산자 조직간의 연계활성화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두 조직의 필요성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농산물 직거래 활동이 잘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또한 이를 보다 활성화시키며, 더 나아가 발전적인 환경운동 및 사회운동으로 확산되기 위해서는 생협과 생산자 조직간의 상호간 친목도모 활동, 생협의 이념과 생협운동의 필요성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 활동, 소식지 교류 활동, 문화 행사 등 다양한 연계 강화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협과 생산자 조직간의 연계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연계 형태는 생협과 생산자 각 조직의 책임자끼리 상호 협력하여 농산물 직거래를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연계활동을 기획, 관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연계사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생협법이 조속히 제정되어야 하고, 생협이념에 대한 교육 및 홍보가 강화될 필요성이 있었다. 그리고 정부와 사회단체 등에서 생협운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직거래 장터 및 연계행사 지원, 유통체계의 개선 등 생협운동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생협과 생산자 조직간의 연계 행사로는 직거래 뿐만아니라 생산자-소비자 모임 및 교류회, 소비자 모임, 농업토론회, 조합원 총회, 생협운동과 직거래 등에 대한 교육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교류활동이 계획, 실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문헌

1. 강수정, 1999, "소비자생활협동조합원의 생활공동체 의식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 논문.
2. 광창렬, 1982, 『신용협동조합운동』, 가톨릭출판부.
3. 광창렬, 1989, 『소비자협동조합운동』, 협동연구원.
4. 권태준 외, 1998, 『도시·환경과 계획』, 한울.
5. 김기섭, 1996, "공생사회에서의 협동조합의 전개 과정에 관한 연구", 일본 고배대학 박사학위 논문.
6. 김인순, 1997, "환경보전 및 감시활동 교육프로그램 개발", 한국여성개발원.
7. 김종숙, 1996,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농산물 구매행태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8. 윤형균 역, 1990, 『공생의 사회 생명의 경제-지역자립의 경제학』, 한살림.
9. 노 욱, 1997, "생활협동조합운동의 현황과 과제", 1회 협동대학 아카데미 자료집.
10. 문옥표, 1995, "여성운동의 한 형태로서의 워커즈 콜렉티브", 여성연구.
11. 생협중앙회 조직부, 1997, 1996, 『생활협동조합 현황』, 생협중앙회출판부.
12. _____, 1996, 『생활협동조합설립안내』, 생협중앙회 출판부.
13. 생활협동조합중앙회, 1993, 『공동구입과 대중운동의 조직론』, 생협중앙회 출판부.
14. _____, 1994, 『일본의 생활협동조합운동』, 생협중앙회 출판부.
15. _____, 1994, 『전환의 시대, 새로운 생활양식을 위하여』, 생협중앙회 출판부.
16. 농어촌사회연구소 역, 1995, 『주민자치와 생활협동운동』, 연구사.
17. 이시재, 1995, "현대 일본의 새로운 사회운동의 새로움이란 무엇인가?", 『경제와 사회』.
18. 이요식 외, 1992, "생활공동체 운동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19. 이창수, 1995, "도·농 지역사회 단위 교류 활

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 일본생활협동조합연합회, 곽창렬 편역, 1997, 『생활협동조합의 공급활동』, 생협중앙회 출판부.
21. 정규호, 1994, “환경문제 심화에 따른 생태적 공동체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석사논문.
22. 정성헌 외, 1987, “생활공동체 운동”, 『공동체 문화』 3, 서울: 공동체.
23. 정은미, 1995, “산지 생활협동조합의 유통활동 분석”, 고려대학교 농업경제학과 석사논문.
24. 정진성, 1996, “새로운 사회운동의 주체로서의 생활협동조합”, 『경제와 사회』 통권 30호.
25. 정희성, 1996, 『환경친화적 소비사회 구축방안』, 한국환경기술개발원.
26. 한국소비자보호원, 1994, 『소비자협동조합법 제정방향』, 한국소비자보호원.
27. 한국여성개발원, 1993, 『환경과 여성의 역할』, 한국여성개발원.
28. 한상민, 1995, “한국 생활협동조합운동의 실태와 발전방향”, 전북대학교 사회학과 석사논문.